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북한 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이희영*

요약 이 연구는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 여성의 생애사를 통해 북한-중국-남한 사이의 초국적 이주의 과정에서 탈북과 결혼이주, 그리고 노동이주가 중층적으로 교차하는 과정을 재구성하였다. 동아시아의 여성이주에 관한 연구의 지평에서 사례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북한 여성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북한-중국-남한 사이의 국가 간 경계가 만들어내는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위계를 '거슬러' 이동하는 개인의 생애사적 노력과 잡종적 네트워크의 형성과정을 재구성하였다. 북한 여성 난민과 조선족, 남한 남성과 같은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입양 및 결혼제도, 나아가 결혼 중개업체라고 하는 조직이 결합하여 동아시아 3국을 배경으로 초국적 이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둘째, 사례연구는 사회주의 여성영웅을 꿈꾸던 북한 여성이 초국적 이주의 과정에서 식량난민, 입양된 조선족 양딸, 조선족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남한사회의 조선족 이주노동자, 북중 국경지역을 오가는 밀수 상인, '사람장사'를 하는 브로커, 탈북 여성, 대한민국 대학생 등 서로 상반된 지위와 국적, (비)결혼상태, 직업, 역할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형성하는 다양한 정체성의 변위(transposition)를 보여준다.

셋째, 연구는 한국 사회에 등장한 여성 이주자들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뿐만 아니라, 남성 집단의 초국적 이주를 위해 '여성들의 몸'이 도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식량난에 처한 북한 여성이 북한-중국-남한 사이의 복합적 이주의 네트워크에서 가장 낮은 사회적 위치에 놓이게 됨으로써 조선족 남성 가족의 초국적 이주를 위한 '열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여성 이주자들의 정체성이 결혼이주 또는 노동이주라는 이원화된 목적으로 환원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식량난을 배

* 대구대, 사회학, biograp@daegu.ac.kr

경으로 한 탈북의 흐름과 증충적으로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탈북 연구의 지평이 '탈북행위'라고 하는 좁은 시야를 넘어 국경을 오가는 이주의 관점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_초국적 이주, 탈북, 정체성, 변위,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1. 문제제기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며 한국사회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성 이주자들이 등장하였다. 소위 탈북 여성, 결혼 이주여성, 조선족 여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명칭은 이주 여성들의 출신지역이나 혹은 이주의 목적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편의적으로 붙인 것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제한적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어떤 개인이든 조선족이라는 출신지역, 탈북 행위 혹은 결혼을 매개로 한 이주라고 하는 단일한 조건에 의해서 정의되거나, 그것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사회의 여성이주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위와 같은 편의적 분류를 전제로 한 틀 속에 머물고 있다. 다시 말해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조선족 여성에 대한 연구, 탈북 여성에 대한 연구, 혹은 결혼을 매개로 한국 사회에 이주한 타 국적 출신의 여성들에 대한 연구로 영역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각의 여성들을 단일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전제하고 있다. 즉 각각의 여성 집단은 탈북, 결혼이주, 조선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에 의해 본질적 혹은 운명적으로 형성되는 정체성을 가질 것이라는 전제이다. 그러나 초국적 이주와 테크놀로지의 지배가 일상화된 21세기의 개인들은 본질적이고 단일하며 통일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이질적이고 유동적이며 비선형적인 양식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주여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서로 다른 범주의 여성들이 가진 경험의 공통점 혹은 연관성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주에 관한 기존 연구가 각 분과학문 혹은 지역 및 주제연구의 한

계 속에서 진행되는 경향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초국적 이주의 경험을 가진 북한 여성의 생애사 속에서 개인의 출신국가, 민족적 배경, 이주의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 초국적 이주의 과정을 통해 민족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나들며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먼저, 한국 내 여성 이주자들에게 대한 기존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 글에서 수행한 연구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초국적 이주의 경험을 가진 북한 여성의 생애사를 재구성한 결과를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례연구 결과가 갖는 함의를 초국적 이주여성에 관한 연구의 지평 속에서 고찰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기된 주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여성들이 탈북하여 제3국으로의 이주과정에서 겪는 삶의 경험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탈북의 경험과 초국적 이주의 경험이 교차하는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셋째, 초국적 이주의 경험을 통해 재구성되는 개인의 정체성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논의와 연구 방법

1) 이주 여성의 정체성과 변위(transposition)¹

이주자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근대사회의 주요한 학술적 주제였다. 계급과 땅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근대적 노동자들의 이주와 이를 고려한 ‘사회적 통합’이 사회학의 고전적인 관심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전적

1 이 글에서 논의하는 정체성과 변위라는 개념은 다음 장에서 소개할 사례의 특징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장치이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정체성과 변위에 맞는 사례를 찾은 것이 아니라, 탈북 경험을 가진 개인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술자의 경험이 갖는 특징을 기술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체성과 변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다. 다만 일반적인 학술논문의 형식에 따라 이론적 논의가 사례연구에 선행하여 소개되었음을 밝혀둔다.

인 근대 과학에서 이방인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방랑하는 자로서 ‘오는 것과 가는 것의 분리 상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낯선 존재’로 파악된다. 즉 이주자는 정착한 공동체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한 채 국외자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질적인 특성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 것이다(Simmel, 1908; 1992).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생애 경험 속에서 토박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세계’를 다르게 해석하는 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정착한 공동체의 토박이들이 향유하는 생활세계의 일상적인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Schuetz, 1972). 이와 같은 이론들은 이주자가 갖게 되는 ‘낯선 자’로의 사회적 위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지만, 개인이 출생하고 성장한 출신국 내에서의 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된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이주의 경험을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한계를 보여준다. 즉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정상모형을 암묵적으로 토박이들의 정체성으로 전제하고 이를 통해 이주자를 바라보고 있으며, 특정한 시기를 통해 완성된 개인의 정체성이 이주를 통해 ‘분리’를 겪게 된다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초국적 이주가 전면화된 현대사회에서 본질적이고 고정된 실체로 이해되는 정체성의 개념은 많은 경우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비판된다(Riegel, 2004: 124). 개인 정체성은 생애의 특정 시기에 완성되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미드(Mead, 1963)의 상호인정의 개념에 기초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에 관한 논의(Honneth, 1992; Taylor, 1995)는 차이의 정치학이라는 관점에서 이주민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미드에 의하면 사회 속의 개인은 타자와 공유하는 상호주관적인 ‘인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부단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되는 사회화의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수행과 갈등, 자신의 요구에 대한 사회적 인정, 혹은 타협과 협상의 경험 등, 타자와의 상호인정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개인이 권리인정 관계의 확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게 되는 행위기

제에 기초한 사회적 실천양식을 호네스는 인정투쟁으로 정의한다(Honneth, 1992: 136). 즉 개인의 인정투쟁의 과정은 곧 정체성의 구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정투쟁론의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정체성은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일반화된 타자와의 인정투쟁의 과정을 통해 구성되며, 따라서 상호작용의 내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처럼 인정투쟁에 관한 이론은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자기인정을 통해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인정투쟁론은 암묵적으로 근대적 국민국가 내에서의 인정투쟁을 전제함으로써 초국적 이주자들의 국경횡단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삶의 복합적인 특성을 포괄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초국적 이주자의 삶과 정체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유하기 위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이동과 재이동의 경험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기회와 위험(chance and risk)들을 정체성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여성이주자들이 경험하는 중층적 젠더 권력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유목적 주체의 윤리를 여성주의 정치학의 관점에서 고민하는 브라이도티의 “변위(transposition)”이라는 개념을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특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변위란 “질적인 의미에서 한 코드/장/축으로 도약하는 것”을 지칭한다. 즉 변위는 상호텍스트적이고 경계를 가로지르며 횡단하는 전이이다. 음악용어로 변위는 “불연속적이지만 조화를 이루는 패턴을 지닌 변주곡과 음조변환”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것은 지그재그로 왔다갔다하고 서로 가로지르는 사이내(in-between) 공간으로 창조된다(브라이도티, 2006; 2011: 32-33). 유전학에서 변위는 도약과 반동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름의 논리나 일관성을 가진 유전적 변이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리 혹은 일관성이 유전자에 의해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자체의 각 요소들 사이에 내재적이지만 요소들의 재배열에 우연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즉 세포의 각 요소들이 갖는 기능과 조직이 변이 가능하고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이다(위의 글,

34).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맥락 속에서 필자는 초국적 이주자의 정체성이 갖는 특성을 ‘변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즉, 변위하는 정체성(transpositional identity)이란 서로 다른 요소들의 상황적 우연성에 의해 발현하고, 도약하는 정체성의 상태를 뜻한다. 특히 서로 다른 초국적 이주의 과정에서 의미있는 경험들의 층위가 ‘독특한 방식’으로 배치됨으로서 작동하는 삶의 양식을 지칭하고자 한다. 이처럼 정체성이 갖는 변위에 주목하는 관점은 변위를 경험하는 타자를 주변적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대안적인 주체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위의 글, 93). 즉 성애화된 몸, 인종화된 몸, 자연화된 몸의 경험을 통해 정체성의 변위가 발생할 때 이러한 경험의 주체는 자신의 존재를 통해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인간중심주의에 저항하며, 스스로 정치적 윤리적 변혁의 주체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2) 기존연구의 검토와 연구방법

한국사회에서 이주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크게 탈북여성, 결혼이주여성, 여성 이주노동자의 범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². 탈북여성에 대한 연구는 이들이 식량위기로 인해 북한 국경을 비합법적으로 이탈했다고 하는 정치적 특성에 주목하여 ‘이주’의 경험에 대한 조명보다는 ‘탈북연구’의 지평 속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여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조선족 출신의 여성에 대한 연구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먼저 탈북여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인권 침해의 피해자로 탈북 여성을 고찰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을 계기로 북한 여성들이 불법 월경을 한 후 중국 및 제3국에서 겪는 인권침해의 상황들, 특히 이들이 직면했던 생존권의 위협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인

2 한국 내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 중 결혼이주와 노동이주의 복합적 연관성에 주목한 소수의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하라(김현미, 2006; 이해경 외, 2006; 황정미, 2011).

성, 2005; 백영옥, 2002; 이임하, 2009; 이희영, 2009; 임순희, 2005; 좋은 벗들, 1999). 둘째, 남한사회에 정착한 탈북 여성들의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가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탈북여성의 남한사회 적응을 고찰한 연구(조영아·전우택, 2005)와 탈북자 가족(윤인진 외, 2007)의 적응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은 탈북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남성 중심적인 역할구조와 관계, 여성들의 존재의식의 변화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탈북 여성들의 한국 사회 적응의 정도를 ‘동화(assimilation)’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탈북 여성들이 어떤 생애사적 경험을 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제도 및 문화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복합적 일상 체험에 기초하여 어떤 사회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일천하다고 할 수 있다³. 나아가 탈북여성들이 긴 이주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공간과 인간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정체성에 주목한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⁴.

다음으로 결혼 이주여성들에⁵ 대한 각 학문분야에서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 사회 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집단’ 또는 처해 있는 상황에서 고통을 받는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이들을 고찰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로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 개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차옥승, 2008; 양옥경 외, 2009; 임수진 외, 2009; 정기선·한지은, 2009; 조운오, 2010). 최근 결혼이주여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활동을 경험하면서 정체성과 사회적 연대를 확장해가는 과정을 조명한 연구(이형하,

3 여성들의 정체성에 주목한 연구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관점에서 탈북자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에 주목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하라(이희영, 2010a; 2010b; 조정아 외, 2010).

4 최근 북한 여성들이 탈북 후 중국 및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성관계를 통해 (재)구성되는 정체성에 주목한 연구를 들 수 있다(이화진, 2011).

5 결혼이주여성은 1998년 국제결혼중개업이 등록제에서 자유업으로 변화된 것을 배경으로 중개업체가 급증하면서 대규모로 한국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한국 정부가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여성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과 ‘혼혈인 및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2008년 ‘다문화가정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은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중심 대상이 되었다. 더불어 이들에 대한 학술적 연구 또한 양적으로 급증하였다. 이 글에서는 각 학문영역의 몇 가지 연구결과들을 대표 사례로 지적한다.

2010)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요컨대 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들이 겪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들을 ‘문제집단’ 또는 정책적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며, 자민족 중심적이고 국가주의적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다른 한편 조선족 여성들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탈북 여성 혹은 결혼 이주 여성과 같이 이주의 계기 혹은 목적에 따라 분류된 집단이 아니라, 민족적 출신에 의해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달리 말해 조선족 여성들은 한편으로 ‘조선민족’이며,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 이주 여성과 구별되지만, 다른 한편 국적이 중화인민공화국이며 결혼 혹은 노동을 목적으로 한국 사회에 이주한다는 점에서 결혼 이주여성과의 공통점을 갖는다⁶. 조선족 여성들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크게 1990년대의 정착 및 생활 실태에 대한 연구(정현옥, 1999; 강유진, 1999) 외에 한국 사회에서의 노동 경험에 대한 연구(이송이 외, 2010; 이주영, 2005) 및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이혜경 외, 2006; 전신자, 2007; 이율이·양성은, 2010)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앞에서 살펴본 탈북 여성 및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 경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족 여성들을 ‘문제적’으로 바라보거나 적응 및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와 달리 조선족 여성들이 정착한 지역사회 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시도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최금해, 2006). 기존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부 조선족 여성들은 1990년대 초기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소위 결혼 이주여성의 범주에 속하며, 많은 경우 이주 노동자로서 한국 사회의 하층계급을 구성하고 있다⁷. 그런데 한국 사회의 다

6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등장하게 된 주요한 정치, 제도적 배경은 1992년 8월 이루어진 한·중 수교와 1998년 등록제였던 국제결혼중개업이 자유업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무부 통계에 의하면 1998년 한 해 동안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중국 소재 한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조선족 여성의 수자가 약 18,000여 명에 이른다(정현옥, 1999: 103).

7 2009년 12월 현재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숫자는 36만여 명으로 전체 이주민의 약 40%

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대상이 결혼이민자 개인이 아니라 가족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소위 '표준다문화가족'을 한국남성과 외국 국적의 여성이 결혼하여 혈연적 자녀를 둔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절대 다수의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 다문화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이해웅, 2010: 843). 따라서 이들은 '이주'라는 관점에서 탈북 여성 혹은 결혼이주여성들과 공통된 사회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다문화정책'에 의해 배제되는 복합적 현실 속에 놓여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탈북 여성, 결혼이주여성 및 조선족 여성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공통적으로 이들은 한국 사회 내에서 '피해자' 혹은 각종 시혜적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정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가부장적 다문화정책 및 자국민 중심주의적 제도에 의해 서로 다른 사회 집단으로 분류됨으로써 '분절된' 정체성을 강제당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⁸. 예를 들어 조선족 여성의 경우 '결혼 이주여성'과 조선족 여성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사회적 분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며, 탈북 여성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초국적 이주의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제도화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대상으로만 분류되어 '예외적'인 위치를 스스로 고수하거나 강요받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사회, 정치적 제도에 의해 분절적으로 규정된 정체성이 개인의 생애사적 경험 속에서 온전하게 단일한 것으로 구성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즉 동아시아의 이주 여성들을 탈북 여성, 결혼 이주여성 혹은 조선족 여성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범주로 구분하는 순간 발생하는 '미끄러짐' 즉 불일치성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례연구에 의하면 한 개인의 생애 과정에서 이주의 경험이 복수로 등장하게 될 때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개인은 상이한 합법적 지위와 인정/불인정의 위치를 경험하며, 이를 배경으로 반복적으로 자신

를 차지한다. 이중 단순 인력이 30여만 명이며, 결혼이민자가 3만 2천여 명, 귀화자가 약 2만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이해웅, 2010: 849).

8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주의가 갖는 문제와 한계를 비판한 연구로 다음을 참조하라(김정선, 2011; 김현미, 2008; 김혜순, 2007; 2008; 2010; 김희정, 2007).

(self)에 대한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고, 전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한 여성의 생애사적 경험 속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의 재구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추적하고자 한다⁹. 이를 위해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 속에서 발전한 생애사 재구성 방법론(이희영, 2005; 2007; 2010c) 및 텍스트 해석법(이희영, 2011)에 기초하여 한 여성의 초국적 이주의 경험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탈북행위, 이주의 목적 혹은 민족적 배경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임의의 범주에 의해 구분된 어떤 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한 여성의 정체성이 생애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생애사 재구성 방법론에 의하면 개인의 생애사적 체험은 그것이 획득하는 특정한 의미(meaning)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즉 수많은 생애사적 체험의 요소들은 각각 불변의 요소로 생애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축적되는 것이 아니다. 각 체험의 내용들은 전 생애과정에서 생애사적 관점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해석되는데, 이어지는 새로운 체험들이 삶에 대한 관점을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체험에 대한 재해석에 연관된다는 점에서 상호의존적이다(Chamberlayne *et al.*, eds, 2000). 따라서 개인의 체험이 갖는 의미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특정한 시기의 단일한 사건 혹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 문제 삼는 여성들의 초국적 이주의 경험들이 갖는 의미는 여성들의 서로 다른 생애사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며, 따라서 전체 생애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난의 행군을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진 개인의 탈북행위가 개인의 생애사적 지평 중 어떤 맥락 속에 위치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탈북 이후 어떤 경험들과 결합하게 되는지의 맥락 속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생애사 재구성 방법론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앞에서 살펴본 변위하는 정체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이 연구의 목적

9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에서는 사례의 '양'이 아니라, 사례 속에서 드러나는 경험의 내용에 주목한다. 즉 사례의 규모에 대한 선호와 사례들의 '평균'으로 객관성과 일반성을 추구하는 양적연구의 패러다임과 달리, 질적 연구방법론에서는 사례를 통해 재구성한 '세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상호 주관적 설득력을 담보하는지에 주목한다(이희영, 2005).

과 인식론적, 방법론적으로 동형적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생애사 재구성 방법론은 정체성의 변위, 즉 서로 다른 생애사적 경험들이 상황적 우연성에 의해 발현하고 도약하는 정체성의 상태를 심층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생애시기에 이루어진 초국적 이주의 경험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배치되고 결합함으로써 드러나는 ‘삶의 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체성의 변위에 접근하기 위해 유의미한 방법론적 길을 제공한다.

3. 사례 연구: “나는 중국-남한-북한을 넘나들었던 초국적 무역가”

1) 연구 과정과 구술자 약력

이 연구는 2010~2012년 수행된 북한 이주민에 대한 구술생애사 연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2010년 통일연구원 및 관련 기관의 지원을 통해 알게 된 북한 이주민에 대한 구술인터뷰의 과정에서 구술자 김정순 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당시 김정순 씨는 한국에 입국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고 경남지역에 정착한 직후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었다. 통일연구원을 통해 집으로 연락을 하자 구술자는 흔쾌히 인터뷰를 승낙했으며, 남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구술자의 집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긴 생머리를 하나로 묶고 화장을 하지 않은 채 약간 마른 몸집을 한 구술자의 첫 인상은 ‘단정한’ 느낌이었다. 전체 삶의 경험에 대한 구술의 과정에서 김정순 씨는 23살이었던 1998년 식량난을 피해 중국으로 탈북한 후 겪었던 초국적 이주의 경험과 북한에서의 삶을 거쳐 2009년 10여 년만에 두 번째로 탈북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과정을 담담하게 전달하였다. 사례 재구성 과정에서 김정순씨의 복합적인 초국적 이주의 경험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다시 만나 구술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 사이 구술자는 조

표 1. 김정순 씨의 생애 이력

연도	나이(만/세)	생애 이력	비고
1975	0	부친 대학교수, 모친 전업주부, 함북 지역에서 3남1녀 중 막내로 출생	부친, 중국에 친척을 둠
1997	22	평양 공업대학 졸업	군복무, 당원
1998	23	식량난으로 탈북,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생활	다수 매매된 경험
1999	24	조선족 양녀로 입양됨	합법적 호구 마련
2000	25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 한국에 입국	서울, 식당에서 노동함
2002	27	양부모로부터 소정의 돈을 받은 후 중국행	중국 조선족 신분
		북한의 고향으로 돌아가 북한 남성과 결혼	남한 체류 사실은 비밀
2003	28	아들 출산	
		중국을 오가며 밀무역, 생필품 장사	남편 대학 졸업을 지원
2004	29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로 파산, 약초 장사	중국 화폐개혁
2008	33	'사람장사'의 와중에 역적죄로 체포	암 환자로 위장, 풀려남
		12월 탈북	남편과 자녀 2명과 동행
2009	34	남한 입국, 경남지역에 정착	임대주택
2010	35	직업훈련 중 구술인터뷰	
2011	36	전문대학 중국어학과 입학	
		조카 2명과 오빠 탈북, 한국입국 조카 2명을 부양하기 위해 일반주택으로 이사	오빠, 해외 체류
2012	37	1월 2차 구술인터뷰	

카 들의 양육을 맡아서 큰 집으로 이사하였고, 첫 인터뷰에서 보다 세련된 모습이었으며, 쾌활하고 활동적인 느낌을 주었다.

위 구술자 김정순씨의 생애 이력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고난의 행군시기였던 1998년 중국으로 월경한 이후부터 2009년 한국사회에 입국할 때까지 북한, 중국, 남한 사이의 국경 횡단 경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9년 국정원 등의 수사를 거쳐 '탈북자'로 한국사회에 정착하게 된 것이 구술자의 생애사적 경험 속에서 한국사회로의 두 번째 이주였다는 점이다. 다음에서는 구술자의 체험된 생애사에 대한 재구성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이주의 경험을 살펴보기로 하자.

2) 김일성 사회주의 사회의 ‘여성 영웅’을 꿈꾸다

구술자의 인터뷰 자료를 통해 정리한 위의 약력에 의하면 구술자는 1970년대 중반 대학교수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3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구술자의 아버지는 이공계열의 대학교수로 북한 사회체제에 신심을 가진 연구자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구술자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출생하여 23살의 나이에 공부를 하기 위해 북한 사회로 이주하였으며, 남동생을 비롯한 친척들이 중국에 살고 있다는 조건 때문에 소위 ‘계급적’으로 북한사회에서 ‘출세’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⁰. 구술자의 어머니 또한 당원으로서 공장노동을 하다가 퇴직했다고 한다.

사례 분석에 의하면 1975년 함경도지역 대학교수의 외동딸로 태어난 구술자는 유복한 가족 환경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직장인 대학을 통해 북한 정부가 모든 생필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어린시기에 특별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 구술자는 1992년 뛰어난 학업능력으로 고등중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당에 대한 충성도를 인정받아 북한 사회의 엘리트층을 꿈꾸며 평양에 있는 10대 대학 중 하나로 진학하였다. 평양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기 구술자는 평생 먹어보지 못하던 ‘이밥[쌀밥]’을 먹으며 정기적인 간식과 생필품을 제공받았다. 또한 북한 사회에서 외국 유학을 하고 돌아오는 등 최고의 학력을 가진 교수진으로부터 컴퓨터 교육을 포함한 ‘최고급의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대학 기간까지는 진짜 남부럽지 않게 그때까지는 진짜 남부럽지 않게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 태어난 걸 진짜 그때는 긍지로 생각했어요. 대학을 졸업하면서는 포부로 진짜 ‘김일성 사회주의 사회에서 난 여성 영웅이 되겠다 하

10 북한사회에서는 출신 가족의 계급과 당에 대한 충성도에 근거하여 각 개인을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위와 업무를 결정하는 소위 ‘계급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는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회에 나와서 꿈도 진짜’ 무조건 내가 사회가 알아주는 삶을 산다. 일반적인 삶은 안 산다. 내가 진짜 부각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꿈도 꿔고 이렇게 살았는데(…)”.(김정순 구술녹취록, 2010/9)

위의 단락에서 구술자는 자신이 20대 초반 가졌던 미래에 대한 꿈과 포부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대학교수의 외동딸이며 고향에서 적어도 중산 계층에 속했던 구술자는 성인이 될 때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이밥”을 먹고 소위 ‘컴퓨터 교육’을 비롯한 최고급의 교육을 받았던 ‘평양시민’으로서의 경험(1992~1997)을 통해 북한사회의 ‘엘리트’로서 자신을 정체화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위의 텍스트에서 반복되는 ‘진짜’는 평양에서의 대학시절 사회주의 사회에 충성을 다했던 자신의 ‘진정성’을 현재 탈북자의 위치에서 다시금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탈북하여 남한사회에 정착한 현재의 처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나간 청년시절의 ‘순진함’과 ‘열정’에 대한 강조이자, 30대 중반의 나이에 남한 사회에 정착한 현재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여 느껴지는 차이를 표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북한사회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진 여성으로서 김일성 사회주의 사회의 “영웅”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생각했던 구술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배치’를 받아 ○○ 관리국 지도원으로 관리업무를 시작했다고 한다. 능력을 인정받아 대학에서의 전공과 상관없이 중앙부서에 발탁된 것이다.

3) 굶어죽기 싫어서 중국으로 월경한 북한여성 엘리트

북한 사회의 관례에 따라 세 명의 오빠들이 모두 군에 입대하여 장기 복무 후 갖 대학에 입학할 무렵인 1997년, 구술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핵심조직의 관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내가 뭐 97년도 졸업을 해가지고 1년- 1년 못됐지요. 결국은 졸업하자마자

자 일해가지고 1년 그저 한 6개월 정도만 내가 먹여 살리다가 그 이후로는 뭐 출근을 해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동네에서 다 죽어가도 그래도 뭐 좀 유지하던 게 내까지 떨어지니까 우리 집도 결국은 뭐 출근도 못하고 (...) 다 중단이 되고, 직장에도 결국은 뭐 못나오면 '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죽은 게 분명하니까 굶어서 죽으니까- 출근을 못하면 '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솔직히 내 판에는 그래도 진짜 최고로 살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굶어죽기는 싫더라구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랑 80년대에 우리 중국에 있는 삼촌한테도 몇 번을 다녔어요. 중국에 대한 말을 이미 좀 들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에 가서 나도 돈 좀 벌어가지고 오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98년도에 내가 중국으로 들어왔던 거죠. 돈을 벌자고-."(김정순 구술녹취록, 2010/12)

1997년 사회주의 북한사회의 여성 영웅을 꿈꾸며 직업 활동을 시작한 구술자는 1년이 채 되지 못해 배급 중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군복무 중인 오빠들과 퇴직한 부모님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던 구술자가 직장으로부터 배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구술자 가족 전체의 생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했다. 생계가 끊어져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아사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위 텍스트에서 구술자는 당시의 상황을 “진짜 최고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자신이 먹을 것이 없어 죽기 직전의 상황에 처한 것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즉 의식주와 관련된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명예와 인정을 추구하던 자신이 급속한 북한사회의 ‘미공급’ 상황에 직면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극단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사례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생존의 위기에서 구술자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선택’은 비합법적인 월경이었다. 위의 텍스트에서 구술자가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있는 친척과의 ‘비공식적’ 연계이다. 2012년의 2차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구술자의 부모는 1980년대부터 공식적으로 친척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중국을 오가며 비공식적으로 물건을 가져다 판매하였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생존 위기에 처한 구슬자는 이와 같은 친척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중국으로 탈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굶어 죽기 직전의 비참한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이 중국의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이었다. 직장에 매인 남성들을 대신하여 식량위기에 처한 가족을 구하기 위해 딸인 구슬자가 초국적 이주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은 전 지구적인 돌봄 노동의 선(global care chain)을 타고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되는 현상 즉, ‘생존의 여성화(feminization of survival)’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황정미, 2009: 14-15). 다시 말해 배급 중단 상황에 처한 북한 사회에서 절대 다수의 여성들이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월경을 하게 되는 현상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계 속에서 저개발국 여성들이 가족 및 친족을 대표하여 이주를 선택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인 것이다. 그런데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엘리트였던 구슬자가 합법적인 여행 허가서 없이 월경을 하여 중국 친척을 방문한다는 것은 평소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여성영웅이 되기 위한 정치적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슬자가 탈북을 하게 된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자.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굶어 봤어요. 진짜 한 달을 한 열흘을 굶어봤나? 진짜 강짜 못 먹고 물만 먹고 열흘을 굶으니까 진짜 일어도 못나겠더라구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니지, 오빠들이 들에 가서 개를 잡아 왔더라구요. 막 다니는 개를 잡아온 거 같애요. 그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사람이 못 먹는데 개가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못 먹어서 썩썩거리고 누워있는 거 어느 집에서 아마 잃어먹었겠지. 저 뭐 진짜 너무 못사는 집은 아니니까 그래도 개래도 아직까지 잘 살아있었고- 그 개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먹었고, 그걸 먹고 두만강을 건넜던 거 같애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싫어가지고- (...) 그때가 제일 굶었던 아무래도 그때가 6개월이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애요. 그러면서 뭐 자라면서 대학 들어가고 음: 배급이 줄기 전까지는 내 판에는 진짜 이 사회주의 사

회라는 게 너무 좋았고 이 사회에서 태어난 게 정말 긍지로 생각했고- 그때 교육 상태에서는 내 머릿속에는 자본주의라 하는 그 교육은 진짜 깡통 들고 다니고 거지가 많고, 병들어서 죽어도 누가 상관을 안 하고- 그런 교육만 받고 자라가지고 얼마나 내가 우리 사회주의 사회에 태어난 게 다행이라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한 6개월 동안 굶고 다니니까 생각이라는 게 없죠. 사람이 굶으면 무슨 생각도 없더라구요.”(김정순 구술녹취록, 2010/31)

위의 자료에 의하면 구술자는 탈북하기 1년 전부터 점진적인 식량부족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서 구술자는 6개월 동안 ‘미공급’ 상황에서 집안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팔거나 먹을 것으로 바꾸어서 겨우 끼니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열흘 동안 물 밖에 먹지 못하고 힘없이 누워있었던 당시 가족들의 처지를 반복적으로 묘사하였다.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와 그 부인인 어머니, 그리고 평양 소재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중앙부서에서 활동하던 구술자와 군 복무를 마친 오빠들이 물론 연명하며 힘없이 집안에 누워있던 당시의 상황이 바로 구술자가 충성을 바치고자 맹세했던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1998년 현실이었던 것이다. 아사 직전의 가족들을 살린 것은 들판에 쓰러진 개의 육신이었다. 구술자의 가족은 생존의 본능으로 눈앞의 개를 취한 것이다. 6개월을 굶고 있던 구술자와 가족들의 생존본능이 ‘생각’을 이긴 것이다. 요컨대 구술자가 아사 직전의 상황에서 남의 개를 잡아먹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갔던 행위는 단지 불법으로 국가 사이의 경계를 넘은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영웅으로서의 긍지와 윤리의 경계를 넘어가는 경험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신이 스스로 부여한 ‘사회적 생명’을 거스르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술자에게 1998년의 생존위기와 탈북의 경험은 중요한 생애사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구술자의 경험에서 중요한 점은 몸으로 경험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여 정치, 사회적 생명의 우선성을 포기하고 육체적,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서 탈북을 하게 된 것이다.

4) 매매혼의 경험과 가난하고 불쌍한 한족 남자들

2010년 인터뷰에서 구술자는 1998년 탈북에서 2008년 2차 탈북까지 10여년의 시간을 “다르게 살았던 시기”로 표현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분석에 의하면 구술자가 기대했던 ‘사회주의 여성 영웅’으로서의 삶과 다른 경험을 했던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 구술자는 탈북 직후의 경험에 대해서 담담히 서술하고 있다.

“그저 무작정하고 강을 건너서 갔으니까 그 어떤 집이라고 들어갔는데 뭐 그 집에서 결국은 삼촌 집을 보내준다 하고- 그때 생각해 보면 삼촌 집을 보내준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며칠을 그러구 있으니까 옷도 갈아입히고 무슨 뭐 하더니 어떤 집에 데려다 준다고 우리 삼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며 길을 떠나가지고는 그냥 결국은 팔렸죠, 그때부터는- 팔려가지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장춘이라는 거 같아요. 장춘이라는 곳으로 팔려가서 제가 그쪽에서 하도 북한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덕에 북한은 한문을 많이 배워 줬요(...)'어, 내가 어떤 데 왔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오던 길을 기억해가지고 다행히 또 거기에서도 하룻밤 만에 또 도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올랐다가는 또 뭐 잡혀가지고 아무튼 한 서너 번은 잡혔다 또 살리고 이랬던 거 같아요.”(김정순 구술녹취록, 2010/13)

사례 분석에 의하면 1998년 구술자는 브로커의 도움 없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들은 정보를 가지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국경 건너편에 도착하여 무작정 들어갔던 중국 사람의 집에 기숙하다가 결국은 많은 북한 여성들의 사례와 같이 매매혼을 당한 것으로 짐작된다¹¹. 이미 두만강을 불법으로 건너오는 북한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국경 근처에는 도착하는 북한 사람들을 연계하는 브로커 조직이 형성되었고,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11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매춘이 금지된 중국사회에서는 주로 매매혼의 방식으로 '여성'들이 거래되고 이를 통해 동거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분 인근 한족 남성들에게 팔려가거나, 혹은 노인집안의 노동력으로 팔려가기도 하였다. 중국에 사는 친척을 찾아가 경제적 도움을 구할 목적으로 국경을 건너간 구술자 또한 주체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매혼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텍스트에서 구술자는 당시 상황을 반복적으로 붙잡혀 매매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도망쳤던 경우로 “서너 번은 잡혔다 또 살리고 이랬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매매혼을 중계하는 브로커에게 잡혀 ‘죽을 상태’가 된 자신을 온갖 기지를 발휘하여 살려냈던 상황들을 극도의 긴장과 위협 속에서 생사의 경계를 오갔던 경험으로 전달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구술자가 이처럼 생사를 오갔던 자신의 극적인 경험을 감정이입을 배제한 채 단순한 행위의 반복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제3자의 일상적 사건을 전달하듯 무심히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술의 형식은 구술자가 암묵적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사건을 극도로 압축하여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감정 소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이와 관련된 상대방의 관심과 질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요컨대 국경을 넘어간 구술자는 하룻밤 사이에 북한사회의 엘리트 여성에서 비국민인 불법 체류자의 신세로 전락했으며, 결국 국적을 가진 남성들에게 성애화된 몸으로 매매되는 처지에 놓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무국적의 도망자 신세가 된 구술자가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거듭 탈출을 시도한 것이다.

“나는 중국에 살면서 솔직히 중국에 그 있던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미안할 정도예요. 내 때문에 돈을 팔아서 데려갔다가 내가 또 달아나고 그래가지고 돈만 팔고- 솔직히 그 갔던 사람들은 잘사는 사람 없었거든요. 다 시골이고 농촌에-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알아보면 그 팔린 사람들 나를 얼마나 샀나 하고 이렇게 자기네 돈을 이렇게 얼마에 샀다하고 말 하거든요. 이렇게 샀다고 하면 8천원이나 됐겠죠. 8천원이나 될지 만원이나 이렇게 샀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해보면 지금 불쌍하죠. 지금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당했으면 괴씸하겠는데 너무 자기네한테 진짜 자기 사람처럼 받아

들여가지고 키워가지고 솔직히 내 마음을 마음을 열어 열자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달아났으니까 미안하죠. 내 마음이 많이 미안하고 그래요. 중국에서 살던 일은 내가 당하는 게 없어가지고 솔직히 그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죠. 미안한 마음뿐이에요.”(김정순 구술녹취록, 2010/29)

위의 텍스트에서 구술자는 1998년 도강하여 중국의 이곳저곳으로 팔려 다니던 상황을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례분석의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구술자가 돈을 지불하고 자신을 샀던 중국인들을 ‘불쌍한 사람들’로 바라보고 있는 점이다. 즉 구술자는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채 팔리는 육체가 되었던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변방의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가난한 사람들이 모처럼 ‘여성’을 소유하기 위해 돈을 지불했으나 결국 돈과 여성을 모두 잃어야 했던 상황에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 나아가 비록 돈을 주고 자신을 샀으나 거칠게 대하지 않고 자신이 마음을 열기를 기다려주었던 그들에 대한 미안함을 포함으로써, 돈 없고 힘없는 절대 다수의 농민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구술자의 관점은 20대 초반 북한 중앙부서의 엘리트로 배치되었던 여성이 아니라, 모든 권리를 잃고 타인의 의지에 종속되어 팔려 다녀야 했던 식량난민으로서의 경험 속에서 형성되었으리라 추정된다.

5) 조선족 양딸로 한국남성과 결혼하다

생애사적 자료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구술자는 도강 후 1년 정도가 지날 무렵 조선족 남성에게 매매되었다. 그런데 한동안 잘 먹여주고 대우하던 조선족 남성은 구술자에게 흔치 않은 제안을 하였다고 한다.

“조선말을 하시는 조선족이더라구요. 그 분 그 아버지한테 팔려가 가지고는 뭐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데리고 가가지고 뭐 옷이나 갈아입히고 밥 맥이고 하던데 뗏, 뗏 달이 흘러가지고는 호구도 해주고 안전하게-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또 집에 오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빨리 돈을 좀 벌 어가지고 집으로 좀 가야 되겠는데-’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보고 ‘아버지, 나 솔직히 이렇게 들어왔는데 북에 돈이라든 좀 보내야 되지 않나?’ 하니깐 그러면 내가 하란대로 하자고, “너는 아무래도 북한 사람이니까 말도 모르고 하니깐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는 북한 사람인 걸 동네에서 알기만이라도 하면 북송돼서 공안에 잡혀가지고 북송되니까 한국에 가란”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한국에 간다는 말은 솔직히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먹고 살자고 중국에 왔는데 한국에 간다는 생각을 하니깐 무섭더라구요. 딱 역적이 되는 거 같아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때 그렇게 와가지고 안 갔으면은 더 좋았을 건데 그때는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 또 달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그때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왜 나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물론 나는 내가 나를 한국에 가면 내가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저 돈을 준다는 그 말에 ‘나는 돈을 가지면 다시 북에 가서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그저 그저 하나 생각으로 그렇게 했죠. 어디 뭐 팔려 다니기도 싫고 이제는 돈을 벌어야 북에도 갈 수 있고 하는 그저 그 생각뿐인 거 같았어요.”(김정순 구술녹취록, 2010/13-14)

구술자료에 의하면 조선족은 아들 둘을 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매매혼이나 노동인력을 소유할 목적으로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남성은 20대 초반의 난민이었던 구술자를 집으로 데려와 한동안 잘 대우한 후 양녀로 입양하였다. 즉 구술자는 조선족 가족의 양딸이 되어 합법적인 호구를 갖게 된 것이다. 아사의 위협에서 벗어나 조선족의 양딸이 된 구술자에게 조선족 남성이 제안한 것은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다. 처음 구술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양딸로 삼은 후 남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양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적대국인 남한으로 가서 역적이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다시 조선족 가족으로부터 탈출하여 이곳저곳을 유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사회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갈 곳이 없었던 구슬자는 조선족 가족에게 돌아가 결국 남한으로 가는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북한을 이탈한 여성들 중 많은 경우 ‘매매혼’ 등을 통해 중국 남성들과 동거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좀 더 안정적이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찾기 위해 ‘탈출과 저항’을 반복한다(이화진, 2011: 181). 탈출과 저항은 여성들이 초국적 이주의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자, 낯선 공간에서 삶을 지속하기 위한 방식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구슬자 또한 탈출과 저항을 반복하며 고민한 끝에 중국조선족 양딸의 신분으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남한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제 점령 시기 중국으로 이주하여 중국 동북 3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에 정착했던 조선인들은 대략 19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중국과 한반도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북한, 한국, 일본, 미국, 중국연해, 내륙의 대도시 등으로 이주를 거듭하였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1980년 중국의 개혁개방과 1992년 한·중수교, 국제결혼의 급증을 통해 현재 약 50만 명의 조선족이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다(한겨레, 2011.11.04). 특히 88올림픽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한 한국사회를 알게 된 조선족들은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에 비해 임금이 몇 배 혹은 몇 십 배가 높은 한국의 시장이 큰 경제적 유인 조건이 되었으나 한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은 국제시장의 일반적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열쇠’가 되었다(백-게른스하임, 2010: 149; 전신자, 2007: 60). 즉 조선족 여성이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할 경우 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중국에 거주하는 부모와 친척을 초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한중 결혼 기획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슬자를 양딸로 삼은 조선족 아버지는 구슬자에게 한국으로 갈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중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자와 선을 보고 결혼을 하여 한국에 간 후 자신들을 초청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구슬자는 돈을 받아서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조선족 양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한 위의 텍스트에서 구술자는 양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인 다른 이유가 “어디 뭐 팔려 다니기도 싫어”서 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자신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팔리게 되어 어떤 삶의 처지에 놓이게 될지 알 수 없는 불법체류 난민의 위치가 결국 적대국인 남한으로 가는 ‘위험’을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이러한 선택에는 만일 성공할 경우 큰 돈을 벌어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구술자는 남한으로의 중개 결혼을 ‘팔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한 자신의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흥미로운 점은 구술자의 초국적 이주의 과정에서 ‘조선족’과 ‘남한 사람’이 의미있는 타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8~2000년 구술자가 중국에서 난민으로 생활하는 동안 다양한 환경 및 사람들과 조우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구술자의 생애사에서 의미있게 기억되는 두 집단이 ‘한국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북·중 국경지역에서 형성되는 탈북자들의 이주에 관한 연구는 이들의 이주가 무(無)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온 문화적, 언어적 커뮤니티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들의 이주가 특정한 장소들로 연결된 선(line)이 아니라 친숙한 문화적, 언어적 공동체 내로의 이주를 통해 ‘경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강조한다(김성경, 2012). 김정순 씨의 초국적 이주의 과정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단순한 경계 넘기가 아니라 새로운 경계 만들기로 이해할 수 있다.

“예.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부모님들 어데서 소개로 뭐 데리고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한국 분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도 뭐 위장결혼이니까 아마 부모님들한테 돈두 받고 아마 그런 식이었던 거 같어요. 와가지고 뭐 서류를 수속을 하고 하는 걸 다 아버지가 했으니까- 나는 뭐 진짜 그저 형태만 있으면 됐죠. 딸이다 하고 형태만 있으면 아버지가 다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는 그 사람하고는 내가 일단 한국에 오고 부모들이 한국에 온 다음에는 아마 계약이 끝나는 거 같어요. 나는 내가 부

모들이 얘기하는 게 부모들은 여기에서 여기에 일단 한국에 왔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이제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니가 여기 있다가 돈은 이미 받았으니까 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너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는 부모들도 나를 버렸고, 그 사람도 이제는 부모들하고 계약이 어떻게 돼있는지 몰라도 그분도 뭐 나를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와가지고 한- 두달은 같이 그 집에서- 수숙이 아직 채 안됐잖아요. 내가 먼저 오고 부모들이 오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분하고 한 두, 석달 정도 같이 있으면서 부모들이 오는 수숙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나는 “니는 이제 가겠으면 가고 뭐 마음대로 하고 이제 우리하고 인연은 끝났다.” 하고 헤어지게 하고.”(김정순 구술녹취록, 2010/14)

위의 텍스트 분석에 의하면 이주 목적의 위장결혼과 관련된 세 가지의 계약관계가 등장한다. 먼저 구술자와 양아버지 사이의 계약이다. 불법체류 식량난민의 처지인 북한 여성 김정순 씨를 돈을 주고 사서 양딸로 삼은 조선족 양아버지는 중국의 조선족 자치주라고 하는 공간에서 절대적으로 우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양자 사이의 사회, 정치적 위치는 비국민과 국민, 성애화된 몸으로서의 상품과 상품을 구매한 사람, 양녀와 양아버지라고 하는 위계 속에 놓여있다. 양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이 없었던 구술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남한으로의 위장 결혼을 받아들이는 대신 이후 중국 돈 2만원이라는 거금을 받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조선족 양아버지와 한국 남성은 중국과 한국 사이의 초국적 이주의 네트워크 속에서 위장 결혼의 계약 당사자들이다. 한국 남성의 경우 자신이 속한 한국이라는 출신국이 갖는 경제적 위치에 의해 조선족 남성보다 유리한 위치를 갖는다. 따라서 잠깐 결혼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임시 아내’와 일정한 금액의 돈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술자와 한국 남성 사이의 계약이다. 북한과 남한 사이의 적대관계를 잘 아는 조선족 양아버지가 한국 남성에게 북한 출신인 구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 여성의 신분이 된 구술자와 남한 남성사이의 관계는 한정된 계약 기간 내에서의 부부이다.

한국사회의 모든 권리와 규범에 정통한 한국 남성에 비해 구술자는 조선족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남한 사회에 이주한 북한여성이라는 이중, 삼중의 위험 속에서 계약을 성공시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양아버지와 한국남성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이 세가지의 계약이 작동하는 배경에 북한과 중국 남한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3국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역관계와 함께 젠더권력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식량난에 처한 북한과 개혁개방의 경제체제로 전환한 중국, 그리고 본격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가동 중인 남한이라고 하는 경제적 위계가 초국적 이주의 네트워크에서 밀고 당기는(push & pull) 중요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동시에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월경한 구술자의 경우 '젊은 여성'이라고 하는 젠더적 위치에 의해 '성애화된 몸'으로 중국을 거쳐 남한 사회로 거래되고 있다. 즉 중국에서 남한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남성노동자들이 남한사회로 입국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로 '여성거래'라고 하는 고전적인 결혼제도(레비-스트로스)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 출신의 식량난민인 구술자는 북한-중국-남한사이의 초국적 이주의 네트워크에서 가장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6) 북한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혹은 이주노동자

사례 분석에 의하면 구술자는 2001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선을 본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조선족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서너 달 동안 한국 남성과 함께 생활하며 조선족 양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초청 서류 등을 작성하고 기다린 후, 한국에 입국한 양아버지로부터 약속한 중국 돈 2만 위안을 받은 후 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였다. 이후 구술자는 결혼 과정에서 알게 된 한 중국인 여성과 함께 생활하며 서울 강남지역의 식당에서 일했다.

“그때까지는 내가 아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아는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중국에었는데 애하고 같이 있다가 내가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1년여 동안 있는 기간에 서울에 그 교대라는데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식집에서 일했었거든요. 일을 하다가 헤어져 가지고 그렇게 그 깨끗이 헤어져 가지고 일을 하다가 나는 2월 2002년 2월 달에 다시 중국으로 왔거든요. 여권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갔었어요.”(김정순 구술녹취록, 2010/14)

사례 분석에 의하면 구술자는 다수의 중국여성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면 중국 임금 서너배 이상의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선족 가족들과 계약 관계를 정리한 후 조선족 여성의 신분으로 한국 식당에서 열 달 정도 일을 한 것이다. 이 시기 구술자는 형식상 ‘결혼이주여성’이었으나, 실제 조선족 ‘여성이주노동자’로 생활한 것이다¹². 구술자의 국제결혼이 조선족 가족에게 노동이주의 열쇠가 되었던 것처럼 구술자 또한 한국 남성의 부인이라는 ‘안정된 신분’으로 한국 식당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들의 경우 결혼이주와 노동이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생애사적 체험 속에서도 혼재되어 있다. 텍스트 분석에 의하면 이 시기 구술자는 중국말을 잘하지 못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극도로 소극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오직 거처와 식당을 오가며 생활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일하던 곳이 ‘교대역 근처’라는 것만 기억한다고 전했다. 비록 북한에서 알고 있던 남한사회와 다른 모습을 적지 않은 기간에 직접 보고 체험하였으나, 신분을 위장한 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돈을 벌어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술자는 번 돈의 거의 전부와 양아버지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가지고 2002년 2월 “그냥” 중국으로 돌아갔다. 즉 조선족 여권을 가진 구술자가 비행기를 타고 중국과 한국의 국경을 오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탈북한지 4년 만에 거액의 돈을 가지고 두만강을 건너 고향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갔다.

12 기존 연구 중 한국 내 여성이주자들의 경우 결혼이주와 노동이주의 경협이 증척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로는 다음을 참조하라(김현미, 2006; 이해경 외, 2006; 황정미, 2011).

지금까지 살펴본 구술자의 이주 경험에서 중요한 특징은 초국적 이주의 과정에서 신분의 변화가 동반된다는 점이다. 처음 구술자가 도강을 하여 중국으로 들어온 후 조선족 가족에게 ‘매매’된 후에 구술자는 조선족 여성의 신분이 되었다. 이후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구술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 다시 말해 구술자는 국가 사이의 경계가 신분의 격차를 낳고 있으며, 여성의 몸이 이와 같은 격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sift)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직접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7) ‘성공’ 하여 돌아와 백두산 혈통의 남자와 결혼하다

2002년 북한으로 돌아간 구술자는 우선 부모님의 중매로 결혼하였다. 구술자의 남편은 백두산 혈통집안의 아들로 군복무를 하고 돌아온 남성이었다. 당시 구술자는 27살로 소위 결혼적령기를 넘긴 나이였으나 대학교수 출신의 아버지가 가진 정치적 기반에다가 구술자가 한국에서 모은 ‘큰 돈’을 기반으로 독립가옥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토대가 좋은 집안의 아들과 결혼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술자는 2003년 아들을 출산하여 양육하는 한편 자신의 ‘돈으로’ 남편의 대학생활을 지원하였다. 이미 배급경제의 토대가 약화된 북한사회에서 출신성분을 인정받아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어도 모든 활동을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술자는 능력있는 아내로서 ‘외조’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생애사적 이력들은 북한으로 돌아간 구술자가 빠른 시간에 소위 ‘정상가족’을 구성한 것을 시사한다. 4년여의 이주기간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결국 구술자는 성공하여 고향에 돌아와 혈통 좋은 가문의 아들과 결혼한 여성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구술자의 ‘큰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012년 2차 인터뷰에서 구술자는 북한 정부가 2004년, 고난의 행군시기 ‘행방불명’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사면하였으나, 결국 자신이 원했던 중앙부서에서 출세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다고 토로하였다. 이런 조

건에서 구슬자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하였다. 중국의 도매시장에서 중국산 혹은 한국산 의복, 신발, 학용품 등 각종 생필품을 가져다가 북한의 소매상들에게 증개하는 것이다.

“그거 뭐 간단하다니까요. 물건을 상품을 가져다가 내가 저는 연길에도 많이 다녔거든요. 연길에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다 이자처럼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장사꾼들하고 해가지고 어떤 항목으로 학용품이면 학용품, 뭐 애기들 옷이면 애기들 옷, 그리고 뭐 애들이 필요한 애들들 옷, 신발, 무슨 이런 자동차 부속품 이런 것들은 딱 종목별로 필요한 걸 다 적어가지고 일단 그 사람들한테서 돈을- 돈을 주거든요. 이제는 뭐 10년을 넘어 거래를 했으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가서 물건을 사- 서시장에 가서 다 샀거든요, 그때- 서시장에는 종합음: 그런 도매 시장이죠. 도매 시장에 가서 다 사가지고 물건을 그때는 장백: 최소한 장백조를 버스로 하나 했는데 거기 사람들은 내가 너무 자주 다니니까 북한 사람이라는 건 상상도 안하거든요.”(김정순 구슬농취록, 2012/11)

위의 텍스트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슬자는 연변지역에 사는 친척 동생들과 국경수비대의 보위부를 ‘끼고’ 연변 서시장에서 북한으로 생필품을 증개하는 장사를 하였다. 친척 동생들의 도움으로 도매시장에서 구입한 물건들을 두만강 국경지역의 ‘쁘트’에 실어서 들어오면 국경수비대의 군인들이 알아서 물건을 보관하는 ‘정해진 장소’까지 운반해 주었다고 한다. 자신의 집에 물건을 둘 경우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보관해주는 사람과 장소를 따로 구해두고 장사를 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북한 내 장마당은 2000년대 들어서 각 품목별로 전문화된 사(私)무역 조직으로 발전하였다¹³.

13 북한 정부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를 발표한 후 2003년 3월 기존의 농민시장을 개편한 종합시장제도를 도입했다(박희진, 2009: 238). 2010년 1월 인공위성 사진을 연구한 경제학자에 의하면 북한 전역에 200여 개의 장마당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노컷뉴스, 2010.

예를 들어 약초, 도자기, 금속 등을 거래하는 개인들은 의류, 식품 등의 영역에서 장사하기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각 분야의 거래선과 같은 노하우를 갖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구술자의 경우 1980년대부터 중국의 친척집을 방문했던 부모님이 뚫어놓은 의류 및 생필품 거래선을 이용하여 규모가 조금 확대된 거래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사는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며 경쟁이 치열해졌고, 합법적인 무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었다. 구술자 또한 경쟁 속에서 가져온 상품들이 잘 팔리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익과 상관없이 국경을 '비법'으로 오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는 보위부 관련자들의 각종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또한 2009년 11월 30일 갑작스럽게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구술자는 '큰 밀천'을 날리게 되었다고 한다¹⁴. 자신이 모아둔 돈을 모두 신권으로 교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무역을 하는 처지에서 신권의 가치가 폭락하여 장사를 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구술자는 그 동안 피하던 '사람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북한을 이탈해 중국 등 제3국에서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소식과 돈을 전하거나, 가능한 경우 중국으로 '나가는 것'을 중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돈을 보내시면 뭐 한국에서 200만원을 100만원을 보내시면 내가 거기에 서 30만원을 먹고 20만원 먹고- 이 사람이 뭐 “20프로를 떼주세요.” 하면 내가 20프로를 떼고 “30프로를 떼주세요” 하면 30프로- 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부모를 몇 년 만에 만나고 동생을 몇 년 만에 만나고 하니 까 솔직히 우리도 이렇게 한국에 와보면 실지 두고 온 형제가 얼마나 보고

01, 27).

14 화폐개혁 직후 달러화에 대한 북한 원화의 환율이 30원대였으나, 2011년 초 3000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주민들의 생활고가 극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던 민간 시장이 붕괴하고 화폐개혁의 정치적 목적이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헤럴드경제, 2011.11.23.).

싶어요. 오지도 못하는데 그 심정을 내가 아니까 여기 와서 한 1년을 살아봤으니까— 그때 그걸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북에 가면서도 ‘내가 이제 앞으로 북에 가면 이제 꼭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했던 일이니까 그때 그냥 그 일을 했었고,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부모님들한테나 형제들한테 보내준 돈에서 20프로 30프로 그 수수료로 먹었어요.”(김정순 구술녹취록, 2010/17)

구술자가 중국을 오가며 생필품을 증개하던 중 ‘사람장사’를 제안한 사람은 중국에 살던 친척 조카들이었다고 한다. 중국 및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도강자’들의 가족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북한 이탈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단기적’ 목적으로 국경을 넘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 체류하거나, 남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런 처지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혹은 남겨진 자식, 남편 등의 가족을 데려오는 일이다. 위의 텍스트에 의하면 구술자는 중국을 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탈북 브로커’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의 가족을 찾아서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하면 전달된 돈의 20~30%를 받는 것으로, 정치적 위험이 크지만 큰 돈벌이가 되었던 것이다.

위의 텍스트에서 중요한 점은 구술자가 이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술자는 위에서 조선족 여성의 신분으로 한국에 와서 결혼하여 지냈던 1년여 간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아마도 구술자는 한국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중국 여자 친구와 살며 서울 강남지역의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다양한 ‘정보’를 경험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 구술자는 조선족 여성의 신분으로 생활했지만 북한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던 처지라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정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으며 소위 ‘이산’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크게 공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탈북자들은 ‘조국을 배신한 자’들이지만, 탈북하여 남한까지 온 구술자의 경험, 즉 초국적 이주

와 정치적 이념적 경계를 넘어본 경험을 가진 구술자의 관점에서는 ‘이산가족’의 처지를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도 떨어져서 살아보니까 솔직히 나는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음: ‘나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족을 데려올] 생각을 안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부모가 그리운 거예요. 그때는 시집도 안 갔으니까 솔직히 제일 그리운 게 부모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나처럼 그때는 한국에 온 사람들 연결해주겠다는 생각 안하고 이렇게 중국이나- 아무튼 그때는 중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에 와서 이렇게 있는 애들도 많겠으니까 나처럼 돌아온 애들은 괜찮은데 돌아오지 못한 애들은 부모를 도와주겠다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나도 항상 그런데, 나는 그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돌아 못가면 꼭 부모를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난 그저 내 마음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지요.”(김정순 구술녹취록, 2010/18)

위에서 구술자는 탈북하여 제3국에 정착한 사람들의 처지와 돈을 벌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가 중국에서 이곳저곳으로 팔려 다니던 당시 자신의 처지를 등치시키고 있다. 낯선 타국에서 온갖 위험과 고통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당시 절절히 부모를 그리워했던 자신의 심정을 대입하여 ‘그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조국을 배신한 역적’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국경을 넘어 가족들과 헤어진 탈북자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구술자의 ‘정치적 변위’를 짐작할 수 있다. 한때 북한 사회주의 사회의 여성영웅을 꿈꾸던 구술자가 북한, 중국, 남한의 경계를 오가는 초국적 이주의 경험을 통해 가족상봉을 요청하는 탈북자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탈북을 중개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인터뷰에서 구술자는 자신이 한국으로 보낸 사람들이 열 명이 넘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보위부의 감시를 모르고 사람들을 만나다가 체포되어 반역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돈을 써서 극형을 면하기는 했

으나 북한 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갈 길이 막히자 구술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선’을 찾아서 남한으로 왔다. 2001년 조선족 여성의 신분으로 방문하여 경험했던 남한이 구술자에게 하나의 대안이 된 것이다. 2001년 당시 ‘그냥 살고 싶었던 땅’이었으나 가족을 찾아서 북한으로 돌아갔던 구술자가 2008년 12월, 북한 사회에서 출세를 하거나 장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막히자 ‘살고 싶었던 땅’인 남한으로 이주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술자의 1차 남한 체류 경험이 중요한 생활세계의 확장이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구술자에게 남한은 낯설고 위험한 곳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다수가 살고 있고 북한사회와 비교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을 억압하지 않는 ‘가능성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8) 한국의 대학에서 중국 무역을 준비하다

남편과 아들 그리고 큰오빠와 함께 탈북한 구술자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하였다. 처음 임대주택을 받아서 남편 및 아들과 생활하던 구술자는 2010년부터 큰 오빠의 자녀인 조카 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함께 생활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구술자가 ‘탈북자’라고 하는 자신과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위를 최대한 합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세 아이의 영어 교육을 위해 지역 내 방과 후 놀이방 등에 ‘탈북자 자녀’라고 밝히고 교육비를 면제받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큰 아이는 영어 보충 교육을 무료로 받고 있다.

구술자의 남편도 현재 탈북자임을 밝히고 전자회사의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구술자의 남편은 기회가 될 때 ‘도면’을 봐 주기도 하는 등 과외 노동을 하기도 한다. 구술자의 표현에 의하면 남편이 “이제야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술자는 이미 수년에 걸쳐 중국과 남한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탈북 또한 구술자가 준비한 것으로 미루어 현재 남한에서의 가족 관계 속에서 구술자가 암묵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북한사회에서 백두산 혈통의 집안 출신인 구술자의 남편은 형식적으로 ‘가장’이었으나 미지급 상태의 북한사회에서 아무런 배급을 받아오지 못하였으므로,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했던 구술자가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남한으로 이주한 구술자의 가족에게 ‘백두산 혈통’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으며, 남편의 ‘상징적 가치’는 생산직 노동자의 ‘경제적 능력’으로 대체되었다.

다른 한편 구술자는 처음 북한 대학에서 전공했던 의류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학원을 다니기도 했으나 한국의 ‘패션’을 잘 알지 못해 그만두고 2011년 3월 한 전문대학의 중국어학과에 입학하여 한중통역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등록금 전액을 면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성적을 전제로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고 있다. 한시적이지만 현재 구술자가 받고 있는 장학금은 남편의 월급보다 많다.

“중국에도 좀 다녔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너무 생소하지 않았고, 중국어는 이제 졸업하고 나면 뭐 내가 어디서 뭐 전문적인 직업으로는 안써 뭐 쓸 수는 없어도 만약에 너무 뭐 중국으로 다니면서 뭐 지금은 생각은 조금 좀 장사를 좀 해볼까- 북한에서 하던 대로 그런 그거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간강사나 뭐 그런 것도 되면 좋고, 또 나이 제한이 또 받을 까봐- 그쪽으로 좀 중국에 가서 뭐 물건을 나와 뭐 가져오고 뭐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소상 소 그런 거 소규모적인 무역거래 그런 거 (6:01) 중국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보면 좀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김정순 구술녹취록, 2012/3)

위의 텍스트에서 구술자는 과거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했던 장사의 경험과 관계들을 언급하고 있다. 구술자는 현재 전문대학 중국어학과의 2학년으로 졸업 후 중국 무역을 계획하고 있다. 20대에 탈북자의 신분으로 중국에서 생활하며 익혔던 중국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공식 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한편, 중국 무역을 하면서 형성했던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합

법적인 한중 무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구술자는 현재 북한에 있는 두 오빠와 주말마다 통화하며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친척들과도 긴밀히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1998년 중국으로 건너간 이후 2008년 북한을 다시 이탈할 때까지 구술자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남한의 국경을 ‘비합적인’ 방식으로 오가며 공간적, 문화적, 정치·경제적 경험을 하였다. 2009년 남한으로 다시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된 구술자는 이제 과거의 이주 경험을 생애사적 자원으로 ‘합법적인’ 무역활동을 구상하고 있다. 위의 텍스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구술자의 생애사적 경험의 공간인 중국-남한-북한의 경계를 오가는 인간과 사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무역거래’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9) 사례의 특징

지금까지 살펴본 김정순 씨의 사례가 갖는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대학교수의 딸로 성장하여 뛰어난 학업능력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평양 소재 대학을 졸업한 구술자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으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자 중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생애사적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딸인 구술자가 가족을 대표하여 비합법적 이주를 선택하는 것은 전지구적 여성이주의 특징인 ‘생존의 여성화’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북한 사회주의 사회의 여성영웅을 꿈꾸던 구술자는 가족들이 아사에 직면하자 중국 사회로 이주하여 불법 체류 여성의 처지에 놓이게 됨으로써 급격한 생애사적 전환을 경험한다.

둘째, 1998년에서 2000년까지 중국에 머무는 동안 구술자는 매매혼을 통해 반복적으로 한족 남성들에게 팔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저항과 탈출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한다. 가부장적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국경을 비합법적으로 벗어나 중국으로 이주하면서 비(非)국민이 된 구술자는 모든 시민적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결국 남성들에게 ‘거래’되는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시기 구술자가 경험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은 이후 중요한 생애사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술자가 북한에서 중국, 중국에서 남한으로의 초국적 이주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젠더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 여성인 구술자가 국가 경계를 넘어가면서 상향적 파트너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상대편 남성은 하향적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구술자와 중국 한족, 조선족 혹은 남한 국적의 남성과의 관계에서 구술자는 불법 난민의 처지인 자신과 달리 내국인의 신분인 한족 혹은 조선족 남성과 관계 맺기를 통해 사회적 보호를 얻게 되는 반면, 상대방 남성들은 국적을 갖지 못한 구술자와의 관계 맺기를 통해 성적 파트너이자 각종 돌봄 노동을 수행할 여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결국 초국적 이주의 과정에서 구술자는 서로 다른 남성들 사이의 ‘교환’을 매개하는 ‘성애화된 몸’으로 기능하고 있다.

넷째, 1998~2008년 사이 구술자의 삶에서 반복적인 초국적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술자는 탈북자에서 결혼이주여성으로, 나아가 여성 이주노동자의 위치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내 성이주자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들의 경우 결혼이주와 노동이주의 경험이 중첩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있었지만, 탈북과 결혼이주 및 노동이주가 형성하는 교차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구술자의 사례에 의하면 탈북의 과정이 결혼 및 노동이주의 순환과 교차하는 지점에 북한 여성에서 조선족 양녀로의 입양이라고 하는 ‘신분세탁’이 놓여있다. 즉 조선족 남성들이 남한으로 이주하기 위해 필요한 ‘열쇠’로서 북한 여성인 구술자가 조선족 여성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것이다. 결국 ‘성애화된 몸’으로서의 북한 여성이 조선족 남성들의 초국적 이주를 위한 ‘열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긴 초국적 이주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매매혼과 탈출이라고 하는 생애사적 경험을 가진 구술자의 이야기된 생애사 속에 ‘피해자로서의 경험’이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구술자는 자신을 갖기 위해 돈을 지불했던 한족 남성들에 대해 감정이입과 연대의 시선을 보여준다. 또한 2001년 북한으로

돌아간 구술자의 생애사 속에서 이전 시기 중국과 한국으로의 이주과정에서 축적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구술자는 중국으로의 이주경험에 근거하여 중국 북한을 오가며 생필품 장사를 하고, 남한 사회에서의 간접 경험을 통해 남한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사람장사’를 하기도 한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구술자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중국-북한-남한 사이의 무역을 계획하고 있다.

여섯째, 사례연구 결과는 20대 초반 북한사회주의 사회의 여성영웅으로 자신을 정체화하였던 구술자가 초국적 이주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정체성의 변위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1998~2000년 중국에서 ‘식량난민’으로 생활하는 동안 자신과 동거관계를 형성했던 가난한 한족들의 처지에 대한 동정과 연대의 관점을 형성하고 있다. ‘몸’으로 거래되었던 구술자가 가장 낮은 처지에서 지켜보았던 가난하고 힘없는 한족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은 이들의 처지에 대한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00~2001년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조선족 ‘이주노동자’로 생활했던 경험을 통해 구술자가 자신처럼 경황없이 북한을 떠나 한국까지 오게 된 탈북자들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게 된 것이다. 구술자는 스스로 경험한 탈북과 불법 이주의 경험을 통해 탈북자들을 ‘조국을 배신한 역적’으로 평가하는 북한사회의 엘리트의 관점이 아니라 ‘살기위해 가족과 떨어진 사람들’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중국-남한의 국가간 경계를 반복적으로 이주한 경험을 가진 구술자는 과거 북한사회의 ‘밑수꾼’에서 현재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합법적인 무역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것은 초국적 이동을 통한 공간경험과 다양한 신분의 변화를 토대로 새롭게 구성된 구술자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4. 마무리

이 연구에서는 북한 여성인 김정순 씨의 생애사 경험을 통해 북한-중국-

남한 사이의 초국적 이주의 과정에서 탈북과 결혼이주, 그리고 노동이주가 교차하며 연결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구술생애사 연구방법론에 기초한 이 연구는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의 개별적인 사례가 그 자체로 ‘구체적 일반성(das konkrete Allgemeine)’을 담지하고 있다고 이해한다¹⁵. 즉 개별적이고 예외적인 사례가 담고 있는 복합적인 경험의 층위가 바로 해당 ‘사회’를 압축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사례연구의 결과가 초국적 여성 이주에 관한 연구의 지평에서 갖는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초국적 이주의 과정은 특정한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되는 점의 연결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의 잡종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이 연구는 북한 여성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북한-중국-남한 사이의 국가 간 경계가 만들어내는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위계를 ‘거슬러’ 이동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생애사적 노력과 잡종적 네트워크의 형성과정을 재구성하였다. 특히 북한의 식량난으로 형성된 강력한 ‘이주의 힘’이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비(非) 국민인 여성 이주자와 조선족, 남한 남성과 같은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입양과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나아가 결혼중개업체라고 하는 조직이 결합하여 동아시아 3국을 배경으로 한 행위자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둘째, 북한사회의 여성영웅을 꿈꾸던 북한여성이 탈북과 함께 북한-중국-남한 사이의 반복적인 초국적 이주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정체성의 변위가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초국적 이주의 과정에서 이 여성은 식량난민, 입양된 조선족 양딸, 남한 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남한사회의 조선족 이주 노동자, 북중 국경지역을 오가는 밀수상인, ‘사람장사’를 하는 브로커, 탈북여성, 대한민국 대학생 등 서로 상반된 지위와 국적, (비)결혼상태, 직업, 역할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다양

15 ‘구체적 일반성’은 양적 연구의 패러다임에서 주장하는 ‘일반화’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 개념은 현상학적 해석학의 연구 전통에서 하나의 개별적인 사례가 전체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전체’를 시사하고 있음을 뜻한다(Fischer-Rosenthal, 1990:31).

한 차원에서 정체성의 변위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구술자는 북한의 정치 엘리트에서 조·중 밀수 상인으로서의 신분 변화를 통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규범으로부터 거리를 형성하게 되며, 나아가 ‘조국을 배신한 탈북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치적 변위를 형성한다. 다음으로는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거둬들인 매매혼의 경험을 통해 가난한 한족집단에 대한 동정과 연대의 시선을 형성하고 있다. 즉 국적의 차이를 넘어 사회 하층으로서의 계급적 연대감을 보여준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구술자는 북한, 중국, 남한 사이의 국경을 오가는 경제활동을 계획함으로써 지금까지 축적한 자신의 ‘비합법적’ 이주의 경험을 전환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 등장한 여성 이주자들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뿐만 아니라, 남성 집단의 초국적 이주를 위해 ‘여성들의 몸’이 도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촌지역의 여성들이 도시로 이주하거나, 혹은 제3세계의 여성들이 가족과 친족집단을 대표하여 제1세계로 이주를 선택하는 것은 위계적 젠더 권력 속에서 여성들이 생존노동을 담당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이며, 이것의 결과가 곧 ‘이주의 여성화’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북한 여성의 탈북과 남한사회에서의 생계노동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여성이 조선족 가족에게 입양되어 남한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이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즉 조선족 남성들의 초국적 이주를 위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성이 입양을 통해 신분세탁을 하고 위장결혼을 하는 등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식량난에 처한 북한 여성이 북한-중국-남한 사이의 복합적 이주의 네트워크에서 가장 낮은 사회적 위치에 놓이게 됨으로써 조선족 남성 가족의 이주를 위한 ‘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성애화된 북한 여성의 몸’이 조선족 남성들의 남한 사회로의 노동 이주를 매개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여성 이주자들의 정체성이 결혼 이주 또는 노동이주라는 이원화된 목적으로 환원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식량난을 배경으로 한 탈북의 흐름과 중층적으로 교차하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한국 내 여성이주자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결혼 이주여성들과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한 여성들을 단순히 구분할 수 없으며, 이주의 목적이 상호결합 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북한-중국-남한 사이의 동아시아 공간에서 형성되는 여성들의 이주과정에 결혼이주, 노동이주와 함께 탈북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탈북 연구의 지평이 ‘탈북행위’라고 하는 좁은 시야를 넘어 초국적 이주의 관점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결혼이주, 노동이주, 그리고 ‘비합법적 월경’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동아시아 이주의 네트워크에 대한 심층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012년 06월 13일 접수, 06월 25일 수정, 06월 26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유진, 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김성경, 2012, 경험되는 경계 지역과 이동 경로: 북한이탈주민의 경계 넘기 혹은 경계 만들기,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2년 4월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이동의 아시아: 식민, 냉전, 분단체제의 경계들과 민족의 공간들, 105-126.
- 김인성, 2005, 탈북자 현황분석: 탈북, 중간기착, 정착까지의 전 과정의 총체적 분석, 민족연구, 14, 6-34.
- 김정선, 2011,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사회, 92, 205-246.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경제와 사회, 70, 10-37.
- 김현미, 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26, 57-78.
- 김혜순,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위원회 최종 보고서.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의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사회학, 42(2), 36-71.
- 김혜순, 2010, 이민자 사회통합정책(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이민정책연구원 토론회 자료집.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58-79.

- 박흥순, 2007, 다문화와 새로운 정체성, 포스트콜로니얼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111-134.
- 박희진, 2009, 북한시장의 형성과 체제 내 활용, 현대북한연구회 엮음,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한올아카데미, 237-273.
- 백영옥, 2002, 중국 내 탈북 여성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6(1), 241-264.
- 백-게른스하임·엘리자베스, 2010, 누가 누구와 결혼하는가? -이주자들은 결혼상대를 왜 본국에서 데려오나, 올리히 백 외, 위험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새물결, 137-156.
- 브라이도티, 로지, 2006/2011, 트랜스포지션: 유목적 윤리학, 김은주 외 옮김, 문화과학사.
- 서보혁, 2007,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 한올아카데미.
- 설동훈, 2005, 외국인노동자와 인권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 민주주의와 인권, 5(2), 39-77.
- 양옥경·송민경·임세와, 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14(1), 137-168.
- 오경석,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22-56.
- 윤여상, 2002, 탈북자 적응에 관한 '태도변용이론'의 적용 가능성, 대한정치학회보, 10(1), 195-223.
- 윤인진·박영희·윤여상·장혜경·임인숙, 2007, 북한이주민 가족의 사회적응과 가족관계의 변화, 한국가족복지학, 12(2), 89-108.
- 윤인진, 2007, 북한이주민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착지원방안, 아세아연구, 50(2), 106-182.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 이로미·장서영, 2010, 다문화국가 이민자 정책 및 지원서비스 분석: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1).
- 이미경, 2006,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지위변화 전망, 가족과 문화, 18(1), 33-55.
- 이송이 외, 2010, 한국에서 조선족이모로 살아가기: 조선족 육아·가사도우미의 삶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25-36.
- 이율이·양성은, 2010, 한국 내 조선족 여성의 분거가족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77-87.

- 이입하, 2009, 중국 및 제3국 내 탈북여성의 인권 상황,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69-104.
- 이주영, 2005, 한국 내 조선족 여성이주자의 가사노동 경험, 전기사회학대회 자료집, 33-38.
- 이혜웅, 2010, 다문화제도화의 포함/배제논리와 조선족이주여성의 위치성 -젠더 시각으로 본 한국 다문화주의와 동포(민족)주의의 결합-, 후기사회학대회 자료집, 841-851.
- 이형하, 2010,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3), 219-245.
- 이혜경 외,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5), 258-298.
- 이화진, 2011, 탈북여성의 이주경험을 통한 정체성 변화과정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이성관계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1(3), 173-211.
- 이희영,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39(3), 120-148.
- 이희영, 2007, 여성주의 연구에서의 구술자료 재구성, 한국사회학, 41(5), 98-133.
- 이희영, 2009, 남한 내 탈북여성의 인권상황: '국민만들기'와 '여성소수자'로 살아가기,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03-155.
- 이희영, 2010a,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44(1), 207-241.
- 이희영, 2010b, 북한의 사회변동과 섹슈얼리티,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통일연구원.
- 이희영, 2010c, 북한 일상생활 연구자료의 생성과 해석: 구술자료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외침과 속삭임 -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한울아카데미.
- 이희영, 2011, 텍스트의 '세계' 해석과 비판사회과학적 함의: 구술자료의 채록에서 텍스트의 해석으로, 경제와 사회, (91), 103-142.
- 임수진·오수성·한규석,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515-528.
- 임순희, 2005, 식량난과 북한 여성의 삶,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관련 연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419-438.
- 전신자, 2007,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국제결혼으로 본 조선족사회 가족변화, 여/성이론, 16, 57-77.
- 정기선, 한지은, 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2), 87-114.
- 정진현, 2007, 탈분단, 다문화시대, 마이너리티 민족지, 새터민, '우리'를 낫설게 하다,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136-166.

- 정현옥, 1999, 조선족 귀화여성들에 관한 연구: 유입배경, 수용환경 및 부적응에 관한 고찰, 정치·정보연구, 2(3), 103-123.
- 조영아·전우택, 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17-35.
- 조정아 외, 2008,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통일연구원.
- 조정아 외, 2010,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통일연구원.
- 조윤오, 2010, 다문화가정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연구, 피해자학 연구, 18(1), 159-183.
- (사)좋은벗들, 1999,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정토출판사.
- 차옥승, 2008, 국제혼인 이주여성 피해실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담론201, 11(2), 139-169.
- 최금해, 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건수, 2011, 한국의 다문화사회 이행과 이주노동자, 철학과 현실, (91), 21-31.
- 황정미, 2009,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페미니즘연구, 9(2), 1-37.
- Chamberlayne, Prue, Bornat, Joanna, Wengraf, Tom(eds.), 2000, The turn to biographical methods in social science, Comparative issues and exampl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Fischer-Rosenthal, Wolfram, 1990, Diesseits von Mikro und Makro, Phänomenologische Soziologie im Vorfeld einer forschungspolitischen Differenz, in ÖZS. 15, 21-34.
- Mead, G. H., 1963,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nneth, Axel, 1992, Kampf um Anerkenn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문성훈·이현재 옮김, 1996,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동녘).
- Ricoeur, Paul, 1992, Oneself as Another, Translated by Kathleen Blamey,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egel, C., 2004, Im Kampf um Zugehörigkeit und Anerkennung, Orientierungen und Handlungsformen von jungen Migranten, Eine sozio-biografische untersucung, Ffm & London: IKO-Verlag fuer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 Schuetz, Alfred, 1972, Der Fremde, Ein sozialpsychologischer Versuch, 53-69, in. ders, Gesammelte Aufsätze, Bd. I. Den Haag: Martinus Nijhoff.

Simmel, Georg, 1908/1992, Exkurs ueber den Fremden, 764-790, in. ders, Soziologie, Untersuchung ueber die Formen der Versgesellschaftung, Gesammeltausgabe Band II, Frankfurt am Main: Suhrkamp.

Taylor, Charles, 1976, Erklaerung und Interpretation in den Wissenschaften vom Menschen, Ffm: Suhrkamp.

Taylor, Charles, 1995, The Politics of Recognition, 225-256 in Philosophical Argument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Intersectional Experiences of Border Crossing - Marriage Migration - Migrant Work and the Transposition of Identity: Focusing on the Analysis of a North Korean Woman's Life Histories

Hee-Young Yi*

Abstract_This paper reconstructs the intersectional life experiences of a North Korean woman who (re)migrated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South Korea and is now living in South Korea. Key findings from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case study shows the formation process of a 'migration actor-network' across three East Asian countries which is constructed not only by human actors (North Korean women, Korean-Chinese men, South Korean men, etc.) but also involves non-human actors (such as adoption and marriage institutions, international marriage consultancies etc.). Secondly, this North Korean woman, who had aspired to be a socialist heroine, constructed various and contradictory identities throughout the transnational migration process; e.g. as a food refugee, a female Korean-Chinese adoptee, a marriage migrant, a migrant worker in South Korea, a smuggler, a 'broker' in North Korea, a North Korean defector, a South Korean student. As a result, her life histories refer us to various and significant transpositions of identity. Thirdly, more than just exploring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as an important topic in the area of migration research in the Korean contex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bodies of women' are also instrumentalized for the migration of men. Being placed in the lowest position in the migration network between North Korea-China-South Korea, North Korean women act as a 'key' for the migration of Korean-Chinese families to South Korea. Finally, this case study emphasizes that identities of migrant women cannot be reduced to

* Daegu University, Sociology, biograf@daegu.ac.kr

marriage migrants or migrant workers, by revealing, more specifically, the complex constellation of how border crossing processes from North Korea into China intersect with marriage migration and migrant labour in South Korea.

Keywords transnational migration, border crossing from North Korea, transposition of identity, marriage migrant women, migrant worker